영화 '겨울왕국' 속에 숨겨진 동성애 코드 분별하기

"렛잇고~ 렛잇고~~" 요즘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흥얼거리는 세상 노래입니다. 소치 동계 올림픽 효과를 입어 3대 방송사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려주는 노래이기도 하지요.

디즈니에서 만든 이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특별히 한국에서만 천만관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대론적 윤리관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옹호론자들은 자매간에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극찬을 합니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울분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탄의 간교한 술책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거부감 없이 사람들에게 다가와 많은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동성애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의도가 심어져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해해 줘야 한다.' 라는 식의 지식인 놀음 속에서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를 보며 가련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야 한다니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말씀과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해서 영화 '겨울 왕국'속에 교묘히 숨어 들어 있는 동성애 코드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1. 주인공인 엘사는 남들과 다른 마법(손 데는 것은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 소녀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 한편으론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엘사의 마법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존재로 취급되어 궁전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 만의 세계(얼음 왕국)를 만들어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언니를 찾아서 여동생 안나가 험난한 여정을 떠나고 우여곡절 끝에 언니를 만나 설득하지만 언니의 실수로 동생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동생 안나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진실한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보통 흔한 동화이야기 속에 진실한 사랑은 왕자와 공주간의 이야기 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진실한 사랑의 대상이 언니 엘사였던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결국 그의 가족들과 사람들은 그녀를 배척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것이 영화 '겨울왕국' 스토리인데, 이는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을 주제로 한 독립 영화들 속에 담긴 전형적인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2. 동성애옹호/ 실제 동성애자들과 관련이 많은 영화

□이데나 멘젤(Idina Menzel)- 엘사(언니역)-주제가 부름.엘사의 목소리 연기를 한 뮤지컬 배우 이디나 멘젤의 캐스팅도 '엘사 소수자설'을 뒷받침하는데, 이디나 멘젤 본인은 이성애자이지만, 소수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뮤지컬 [렌트]와 [위키드]에서 각각 '모린', '엘파바' 역을 맡아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캐릭터를 맡았던 브로드웨이 디바입니다.

□크리스틴 벨(kristen Bell)- 안나(동생역): 동성애자라고 스스로 밝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1707514460828

남자 주인공 크리스토퍼의 목소리 연기를 한 Jonathan Groff는(사진 왼쪽)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한 동성애자이다. 크리스토퍼의 얼굴이 목소리 연기를 한 동성애자 Jonathan Groff의 얼굴을 쏙 빼닮은 것을 알 수 있다.

□ 조나단 그로프(Jonathan Groff)-크리스토퍼 : 동성애자로 유명한 배우

3. 동성애 커밍아웃을 밝히는 주제가 상징

다음은 이 영화 주제가 “Let it go”의 중요부분의 가사입니다. 가사의 내용을 잘 읽어 보면, 본인이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는 의미를 은연중에 심어주고 있습니다.

Well now they know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알겠지)
Let it go,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둬, 알면 아는거지)
Can't hold it back anymore
(더이상 막을 수 없잖아)
let it go,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둬, 알면 아는거지)
I don't care what they're going to say
(난 그들이 머라고말하든 신경쓰지않아)
let it go, let it go
(그냥 내버려 둬, 알면 아는거지)

4. 오큰 가족들(남자 동성애)

동성애자를 연상시키는 상점 주인 오큰이 사우나 안에 있는 네 아이들과 근육질의 남자를 ‘가족’이라고 언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물론 이 장면은 사우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

건모슴과는 달리 오크이 막과 해동은 동성애자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나 안에는 건장한 남자와 네

족들'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왕국의 원작자인 안데르센의 모국 덴마크는 이미 1989년에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동성애 가족이라고 해도 동화(영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덴마크에선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뜻이지요.

5.엘사와 안나의 부모인 왕과 왕비가 못된 부모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방치하지도 않았으며, 엘사의 숨겨진 능력을 '교정시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사가 "다르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사에 대한 그들의 행동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부모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얼게 만드는 능력을 가진 엘사 에게 항상 "숨겨라, 느끼려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아이를 염려하는 (동성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전형적인 충고인 것입니다.

6.이 영화의 원작자는 유명한 동화작가 안데르센입니다. 그의 일생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그는 양성애자였을 뿐 아니라 변태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주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느낌을 기록한 일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안데르센은 여자를 사랑했음에도, 남자와의 관계 특히 소년들과의 관계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이 땅에 루시퍼가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일루미나티(프리메이슨)들이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들에게 디즈니의 영화 '겨울왕국'을 통해 성별과 관습과 제도를 뛰어넘는 동성애가 곧 '진실한 사랑(true love)'라고 가르치고(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8. 정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속에 경고하셨습니다.

> 레위기 20:13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 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
> 롬1:26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다**.
> 고전5:1-5/**롬1:16-27**
> 레20:16/레18:23
>
> 롬6:21 너희가 지금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동성애는 가증한 것이고, 그 일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 불신자/ 반기독교인들/ 인권 옹호론자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겨울왕국에서 묘사된 엘사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비단 엘사의 이야기가 소수자 전반을 아우르는, 다들 누구나 한 번쯤은 공감해봤을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남들과는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며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의 규율 등에 따라 자신을 맞추는 과정에서 상처입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 때문에 때론 원하지 않게 관계가 단절된 경험이 있기 마련이다. 엘사의 이야기는 성 소수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성 소수자'에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는 셈이다."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화를 여과 없이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 아~ 진실한 사랑은 여자와 여자 간에도 가능하구나.”
다만 그것을 가족간에 사랑이라는 포장지로 잘 숨겨놨을 뿐이고, 진짜 전달하고 싶은 의도는 바로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감출필요 없다. 남들이 뭐라 하든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라.”

성적 소수자, 정신병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고전6:9-11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 하는자,
동성애자, 도둑질 하는자,
탐욕을 부리는자, 술취하는자, 욕하는자
착취하는자...

11절.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우리 하나님께는 늘 방법이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든 그 마귀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롬12:1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